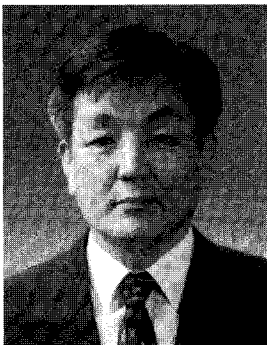


신기술 개발로 업계 선도

향첨가 폴리백 개발



◀ 백무열 서릉산업사 대표

대기업 위주의 정책 속에서도 기술력으로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서릉산업사(대표 백무열)가 바로 튼튼한 뿌리를 갖고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이다.

폴리백, 쇼핑백, 종이백, 카톤박스, 비료포대, 그물백, 자동밴드 등을 생산하고 있는 서릉산업사는 지난 1981년 12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창업해 기술력을 다져오고 있다.

올해 12월이면 창립 20주년을 맞는 어엿한 성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릉산업사는 1994년 일본 마루쇼 카세이(주)와 기술제휴로 LEBEND 방충포대 및 신선도 유지용 필름을 생

산하기 시작하였고, 다음해에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에는 일본 세기스이(주)와 기술제휴로 WASA FRESH 신선도 유지 및 향균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 PL마크 인증획득, 1998년 식품용기 제조허가 취득, 1999년 KSS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킷 쇼핑백 및 거치대를 개발해 특허(실용신안 의장 제22456, 19237, 19238호)를 냈으며 2001년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수상, 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정도를 걸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향마스터배치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반응이 더 좋아 적용제품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향 첨가 폴리백 및 쇼핑백은 상품 포장 기능의 획기적인 일로 최근 마케팅경향인 직접마케팅에서 간접마케팅의 활용도, 차별화가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그 효용도는 무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품은 상품포장의 개념이 소비자의 인지에 밀접하여 다양한 향을 첨가한 기능성 포장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친근감 및 친밀감을 유도하여 상품의 가치도와 선호도, 만족도를 극대화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는 물론 매출증가에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회사측 설명이다.

향을 첨가할 수 있는 재질은 H/D, L/D, PE, PP, OPP, PS, PU, PVC, ABS 등 각종 플라스틱류이며, 아카시아, 아로마, 베이비, 바나나, 체리, 코코아, 커피, 허브, 자스민, 라벤더 등 모든 향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서류이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개발한 향 첨가 폴리백은 액상(휘발성)인 향을 고체화 시

켜 농축, 범용수지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PE의 경우 상온에서 2개월, 음지에서 4개월 정도 향을 지니고 있으며 연장도 가능해 기능에 따라 향의 농도와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리사이클이 가능한 환경친화형 제품이며 환경과, 기업홍보, 제품 이미지 등을 제고시키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이미 종이제품에는 향을 첨가한 것이 시중에

[표 1] 규격표시 획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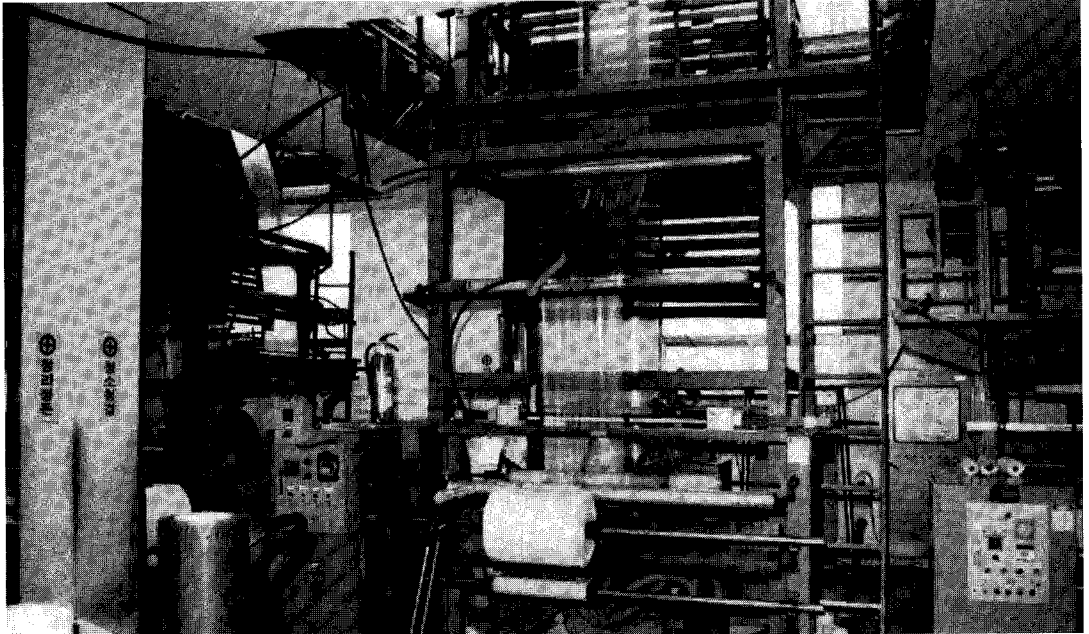
규격표시명	허가품목	허가번호	승인기관	허가일자
PL	쓰레기 분수거용 합성수지(P.S)봉투	제078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1996.3.28
식품용기	용기, 포장지	제14-7가-19호	강서구청	1994.6.1
제조	용기, 포장지	제14호	파주시청	1998. 4.11
KSS	합성수지봉투	제 인경010호	경인프라스틱조합	1999. 1.18
우수단체표준제품	합성수지봉투	제 049호	한국프라스틱조합	1998. 12.1

[표 2] 주요 제품사항 (신제품 개발)

구분	내용	용
LEBEND PACK	신선도 유지 및 방출 P.E BAG	
WASA FRESH BAG	신선도 유지 및 항균 향곰팡 P.E BAG	
퀵소핑백 거치대	퀵소핑백 거치대 : 특허 실용신안 제22456호, 의장 제19237호 소핑백 : 특허 실용신안 제22456호, 의장 제19238호	

[표 3] 생산제품 및 용도

구분	내용	용
소핑백	상품유통 및 포장용 BAG(특허품)	
종량제봉투	쓰레기 수거 포장용BAG(특허품)	
P.E FILM BAG	섬유제품 및 일반상품 포장용BAG(특허품)	
중포대	비료 및 사료 곡물용 포장 BAG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축성 재배용 P.E FILM	
식품포장 BAG	농, 수, 축산물 및 식품포장용 BAG	
스트레치 및 수축필름	음료 식품등의 각종 상품포장용	
TAPE 및 우산봉투	신문, 잡지 및 우산봉투	



▲ 서릉의 필름생산라인

나와 있으나 플라스틱에 적용시킨 것은 서릉에서 처음 개발한 것으로 고체의 분자 발산도가 오래간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제품은 의류포장, 일반 용기에도 접목시킬 수 있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최적이다.

서릉의 백 사장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대중화시키려면 가격이 기존 제품들과 비슷해야 되는 시장구조를 감안, 개발비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여 수요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릉이 이같이 기술력을 키워 오는데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지난 IMF때는 협력업체들의 부도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으며, 수출에 주력,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활력을 찾는 발판으

로 삼았다.

이때 위기를 넘기게 한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기술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기술, 그리고 업계의 믿음을 생각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 이제 새로운 기술로 도약을 다지고 있다.

요즘들어 백 사장이 겪는 어려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적어 자금확보에 대한 것, 이것은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료메이커들이 수출에서 적자를 보고 이를 내수에서 만회하려하는 잘못된 가격 정책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서릉과 같은 경우 수출가로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국내 업체라는 이유로 원



◀ 서울이 일반 폴리백 및 소광백에 항을 첨가하는 제품을 개발해 의류, 화장품등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료공급의 불리함을 안고 있다. 이는 수출가격이 올라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져 결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되는 기현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국내 업체들끼리 외국에서의 출혈 경쟁으로 국가이미지마저 떨어뜨리는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 사장은 여기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력으로 승부 국내시장에서보다 외국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백 사장이 외국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던 그는 내수의 한계를 분석, 일찍 수출에 눈을 돌렸고, 플라스틱조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해도 견적서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 직접 작성해 주고 방법과 기술자문을 해주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견인차 역할도 해주었다.

이렇게 하다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거래처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백 사장은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이런 모든 일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보니 없이 우선 배부터 불리자는 경영 마인드에서 나온 결과라 지적한다.

모든 기업은 이익창출이 기본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에 환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가 가진 기업 운영의 지론이다.

미래 지향적이고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서만 바라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백 사장의 지적이다.

"이제 기업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윤택해지는 방법입니다"라는 백 사장은 "출혈 경쟁보다는 기술을 앞세운 선의의 경쟁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강조했다. [ko]